

Industry Comment

Analyst 이 선 애
02) 6915-5664
annelee@ibks.com

비중확대 (유지)

레저/엔터테인먼트

돌아온 요우커, 원화 약세로 인바운드는 수혜 예상

- 6월, 7월 외국인 입국자 수 YoY 41.0%, 53.5% 감소했으나 8월에는 25.0%로 감소폭 축소
- 8월 마지막 주 외국인 입국자 수는 YoY 1.6% 감소에 그쳐 9월부터 정상화 진행 중
- 호텔롯데 면세 사업부 9월 첫째주 매출은 YoY 15.6% 증가, 성장을 정상 궤도 진입
- 다만 최근의 규제나 국내외 경쟁 심화는 우려 요소

8월 마지막 주부터 외래 입국자 수 정상화

MERS로 인해 6월과 7월 입국자 수 및 면세점 매출은 근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저조했다. 6월과 7월의 입국자 수가 YoY 41.0%, 53.5% 감소했고 당장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명동 거리가 한산해졌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 수는 6월에 YoY 45.1%, 7월에 YoY 63.1% 감소하여 전체 입국자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컸다. 2003년에 창궐한 SARS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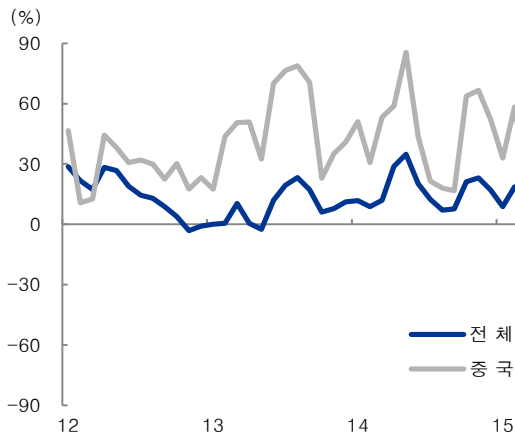
엔화가 다른 통화 대비 약세로 들어서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였던 2013년 이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여행자들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로 많이 온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그마저 6월과 7월에는 큰 폭으로 역전당했다.

다행히 8월 14일부터 시작된 그랜드 코리아 세일에 맞춰 이러한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다. 8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 추세로 돌아섰고, 9월에는 인바운드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8월 외국인 관광객 감소세는 25.0%로 누그러졌고, 특히 8월 마지막 한 주(8월 24일~8월 31일) 방한객은 YoY 1.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실시된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24일간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20만 1,502명으로 일평균 방문객은 8,395명이다. 이는 YoY 177% 증가한 수치이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쿠폰 다운로드 수도 YoY 42% 증가했다. 중국과 홍콩,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이용객이 많이 방문하여 아시아권 국가들의 한국 여행 심리도 완전히 개선되었다. 원화의 약세 전환 또한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한국 여행에 대한 매력 요소이다. 최근 방한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개별 기업인 호텔신라도 Ctrip과 MOU를 체결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면세점 또한 업황 개선의 수혜를 받고 있다. 호텔롯데의 면세 사업부 매출도 8월 첫째주에는 41.7%까지 감소했으나 9월 첫째주(8월 31일~9월 6일)에는 YoY 15.6% 증가하여 성장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면세점의 달러 매출이 원화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고, 이익률 또한 개선되므로 면세점에는 호재이다.

그림 1. 전체 외래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 YoY 증감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IBK투자증권

그림 2.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주간별 매출 YoY 증감률